

후보 단일화 손사래 치지만 '묵시적 연대론' 솔솔

바른미래당도 민주평화당도 '선거연대설' 몸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설'에 몸살을 앓고 있다. 거대 정당과의 선거 연대설은 궁극적으로 중소 정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당장 박주선·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한국당과 연대설을 강하게 부정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20일 오전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의 선거연대설에 대해 "한국당은 극복의 대상이지, 연대나 연합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선거를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연대설을 일축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도 "(한국당과 연대설은) 당내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며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공동대표의 이러한 언급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독자 행보를 통해 당의 생존을 우선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강력한 부인에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낮은 단계의 연대론이 확산하고 있다. 당이 아닌 후보 간의 단일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보수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도 선거연대론에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론에 상당한 견제선 효과 등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으로 흡수되는 것이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조배숙 민평당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가능성 질문에 "전혀 그럴 생각도, 계획도 없다"고 단언했다. 조 대표는 "호남에서 현재 민주당 지지율이 높지만, 막상 선거에 들어가면 일대일 구도로 치열하게 다투고 그 분위기를 저희가 이끌어 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한국당 극복의 대상"

조배숙 "민주당 경쟁의 대상"

안철수 보수 단일후보 전망도

민평당이 여당과의 선거연대에 선을 긋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선전하지 않으면 당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불퇴전의 각오로 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조 대표가 최근 광주·전남·전북 광역단체장 3곳을 모두 석권하겠다는 목표를 거듭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정확히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전남지사 자리가 민평당과의 선거 연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영남 공략에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 호남당인 민평당과의 선거 연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방선거 이후에 민평당과의 정책 연대 등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오른쪽 세 번째)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첫번째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커지는 '안철수 등판론'... 서울시장 출마설 확산 바른미래당 지도부 출마 요청

바른미래당 소속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6·13 전국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설이 확산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연일 안 전 대표 등판론에 군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당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1주일밖에 안 된 데다 기존의 거대 여야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정치 기반도 약한 만큼 당의 간판스타인 안 전 대표를

내세워 바람몰이를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과 충청, 영남, 호남에 각각 1곳씩 광역단체장을 배출함으로써 제 1야당으로 발돋움하는 게 바른미래당의 최대 목표다.

이태규 사무총장은 20일 YTN 라디오에서 "야권에서는 마땅한 주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안 전 대표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는 것"이라면서 "안 전 대표가 나가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은 바른미래당과 보수 진영의 선거연대론에 맞물려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직 뚜렷한 후보가 등장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이 서울에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한국당의 현역 단체장이 버티는 경기(남경필 지사)와 인천(유정복 시장)은 바른미래당

이 후보를 내지 않는 이른바 묵시적인 '전략적 연대'다.

하지만, 이 가설은 제 1야당인 한국당이 지방선거 중 가장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바른미래당 내 호남 의원들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커 성사될 가능성이 아작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바른미래당 의원 30명 전원 교섭단체 인정

국회 사무처, 비례대표 의원 3명 소속의원 유권해석

국회 사무처는 20일 바른미래당 의원 30명 전원을 교섭단체 소속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민주평화당을 지지하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박주선·이상돈·장정숙 의원 3인이 당의 교섭단체 등록에 필요한 연서·날인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번 논란은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교섭단체 참여를 거부할 경우 소속 의원을 몇 명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로 발생했다.

국회법 33조 1항은 20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항에서는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 3명처럼 여러 명의 의원이 연

서·날인을 거부할 경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사무처는 20명 이상의 의원을 둔 정당의 소속의원이 교섭단체 가입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국회법 해설서에 근거해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명이 속한 교섭단체도 바른미래당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추후에 해당 비례대표 3명의 연서·날인을 받도록 하는 서류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법과 해설서를 놓고 많은 검토를 거친 결과 결론을 내렸고, 바른미래당은 30석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지위를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입법 미비인 만큼 향후 국회법 개정시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 개헌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각 당 관계자들이 20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5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개헌의 주요 쟁점을 전략적으로 논의하는 틀을 만들고 이야기했다"면서 "대단은 3당 교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개헌협상 합의

'3+3+3 협의체' 가동...개헌 논의 돌파구 주목

섭단체 원내대표 중심으로 하자고 의거해서 5당으로 할지, 3당으로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당으로 할 경우에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면서 "시작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 이렇게 3인씩 의견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김성태·김동철 원내대표는 전날 정 의장 주재 회동에서 교섭단체 간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한국당은 "정부가 만들고 있는 개헌안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우 원내대표가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우리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안) 준비는 돼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 합의안을 2월 말까지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은 교섭단체 간에 진행되는 게 맞다"면서 "3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헌정특위 간사 간의 '3+3+3'으로 일단 회의는 진행되고 있는 것은 되는대로 안되는 것은 원내대표들이 다시 타결 시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oticon PEOPLE FIRST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면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이사업역 | 전남대 지질학과 졸, 방송대 중어중문학과 졸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